



“佛자도 모르는데 실행할 수 있나요?”

경찰불교회, 예비순경 불자들과 만난 날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중앙사무국 김진홍 국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 김태진 총무(세번째)가 중앙경찰학교 예비 불자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 불교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4월 7일 충주 중앙경찰학교, '특별한 만남'을 앞두고 학교 법당 적보사가 술렁인다. 진작부터 법당에 모인 예비 불자경찰들이 서울과 충북 등지에서 찾아오는 선배 불자경찰들을 기다리고 있다. 메모지에 질문할 내용을 적고, 옷매무시도 다시 여민다.

잠시 후 법당 문이 열려자 시선이 집중된다. 간단한 상견례를 마치고 경찰불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는다. 먼저 대한경불회 김진홍 사무국장과 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원들이 자리를 잡고, 20여 명의 신입 순경과정 경찰들이 그 주위로 원을 그린다.

대한경불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선후배 불자 경찰관 좌담회', 김진홍 사무국장이 발문을 연다.

"반갑습니다. 후배님들.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여러 분이 수료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근무할 때, 스스로 불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다 물어보십시오."

잠깐의 침묵. 머쓱한 분위기를 깨고 중앙경찰학교 165기 김병영 순경이 질문을 던진다.

"일선 경찰서에 경복실은 있어도, 경승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국 104곳 경찰기관에 불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실행공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전국 경찰기관에 경찰불교의 바람이 새겨져 불면서 불교회가 속속 출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 김태진 총무)

"여기 모인 신입 순경들 대부분은 불교의 '불'자도 잘 모릅니다. 초심자들이 쉽게 불교를 접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164기 여경 법무회 백수연)

"후배님들의 실행활동을 위해 선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한경불회 중앙사무국에서 실행활동 중인 불교회와 연결시켜 주는 '경찰불교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경찰청에 커뮤니티를 개설해 불교기초교리 자료 등도 업데이트를 해놓았습니다." (김진홍 사무국장)

"그럼, 경찰생활에 도움이 될 실행법은 무엇이 있고,

중앙경찰학교 법당서 첫 대면

새내기 불자들 질문 두 시간

"불자 자부심으로 살겠다" 다짐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165기 김희년)

"즐겁게 불교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불가, 꽃꽂이, 명상 등 전국 경찰불교회에서 알찬 법회가 마련돼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 이대원 회원)

질문과 대답이 연이어 쏟아진다. 2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품었던 실행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둘씩 풀려간다. 이번에는 선배들의 조언이 이어진다.

"경찰학교 문을 나서면 엄청난 일들이 후배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최소 5년 이상은 치안 현장 구성구축을 누

야 합니다. 힘든 일들로 '내가 왜 경찰을 했다' 하고 후회도 할 겁니다. 그때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들려놓았다'는 만해 스님의 시구를요. 이곳에서 후배님들이 강렬하게 불교를 처음 경험했듯이 말합니다." (중앙경찰학교 불교회 이종진 회장)

대한경불회는 왜 이런 좌담회를 마련했을까?

"불교는 젊어져야 합니다. 일터불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들이 이끌어 주고, 후배들이 따르면 직장불자회는 활성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중앙경찰학교는 경찰포교의 황금어장입니다. 연간 배출되는 신입 순경이 2천4백여 명이나 되고, 전의경은 2만여 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경찰불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진홍 사무국장)

전국에서 활동 중인 경찰불자들은 1만 여명. 치안 현장에서 '참불자 되기' 운동을 벌이며 경찰불교의 바람의 일익고 있는 직장연합단체다.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자부심과 불자로서의 신심으로 뭉쳐있다.

좌담회를 마친 선후배 불자 경찰관들, '행과 아우의 정을 아낌없이 나눴다'며 즐거워한다. 한 후배 경찰의 말에 박수갈채가 나온다.

"선배님들의 방문, 저희에게 강한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기억으로 평생 동안 불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충주=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거창군 공무원 불자회

'공무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권위'와 '딱딱한 인상'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은 법대로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불자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사는 것처럼 우리 불자 공무원들은 언제나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 '친절, 봉사'도 항상 갖추고 있는 특목이랍니다.

창립법회는 지난 2002년 3월 18

일 3월에는 거창군사무원연합회 (회장 심우), 거창불교신도회 창립 준비위원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불자회 창립 2주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뿐인가요?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후원금을 나눠 주는 등 따뜻한 불심도 피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사이버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업무에 바쁜 회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주 만나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수 있게



거창군 공무원 불자회원들이 올 3월 거창 심우사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

병아리 불자회... "신심만은 뜨거워요"

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정신 최우선

일 거창 심우사(주지 심우)에서 봉행했습니다. 35명 불자 공무원들이 부처님 법문을 울바로 배워 군정에 실천하고자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사찰 현장답사입니다. 연중 2회 이상 실시되는 사찰 현장답사는 순례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화일 및 가족, 비회원에겐 부처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병아리 불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회원들은 '초심 불제자' 특유의 뜨거운 신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여 왔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때, 거창군수님 등 많은 축하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불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지난해 부처님오신 날에는 거창을 로터리에 봉축등행사를 봉행했고, 우리불자회의 실행원활인 거창 심우사에서 정기 실행활동도 왕성하게 벌였습니다.

하루고 합니다. 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부처님 떡'을 청 내 모든 사무실, 전사업소, 읍·면·동 등에 보시도 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불자회는 개별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삼사순례, 순회법문, 송년의 밤,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행사의 내실도 기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역 공무원불자회와의 합동법회를 정례화할 겁니다. 합양군, 합천군 공무원 불자회 등과 자주 만나 회원간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전회원이 수계식을 통하여 법명을 받아 오계를 지키며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배우고자 노력할 겁니다.

우리 불자회는 앞으로 더욱 정진해 진정한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회장(행정과장)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童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십시오.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계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계승
농협 053-02-109450 윤계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계승

도서출판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민족사 E-mail : minjoksa@chollian.net